“정부 쌀 생산량 3% 감소 전망치 엉터리”

전남농민단체 “최대 30% 줄어” 호남통계청 항의 방문
“올 생산량 재조사 요구…비축미 35만t 추가 매입을”

전남 농민단체가 19일 정부의 2020년 쌀 생산량 통계가 엉터리라고 주장하며 호남지방통계청을 항의 방문했다.

농민들은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3차례 태풍 등으로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30% 감소했다고 여기는데, 통계청 통계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생산량 전망치는 전년 대비 3% 감소에 그친 것으로 나오면서 농민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80㎏ 한 가마당 22만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고치 산지 쌀값에 대해 정부가 수확기 일시적 급등으로 여기고 공공 비축미 방출 등 가격 조절에 나설 경우,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와 함께 가격 조절에 따른 피해까지 이중고를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진보당 전남 농민위원회(이하 농민단체)는 이날 호남지방통계청을 항의 방문하고 올해 쌀 생산량 재조사를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정부는 지난 9월 15일 작황 조사 결과 2020년 쌀 생산량 전망치는 363만t으로, 이는 이 전년(374만t)보다 3%(11만 t) 감소 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다. 면적 감소분 0.5%를 빼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고작 2.5% 감소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농민단체는 “긴 장마, 폭우, 태풍으로 올해 농산물 생산은 (정부 발표와 달리) 감소했고 쌀도 예외가 아니다”며 “이해하기 힘든 것은 정부가 전남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었다고 보는 것이다. 전남 농민 누구도 전남 쌀 생산량이 전년보다 늘었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남도 역시 정부 통계보다 전남 농민단체 주장이 실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행정 조사한 결과, 정부 통계 15만6000㏊보다 전남지역 벼 재배면적이 6800㏊가량 적은 14만8000㏊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이는 무안군 벼 재배면적 총량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이다. 또한, 10a당 생산량도 전년 대비 1.3% 감소한 465㎏이라는 정부 전망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는 또한 “정부는 쌀 수급에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라고 대국민 발표를 하고 나서 예상치 않게 쌀 가격이 오르자 조기에 정부 양곡을 방출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며 “정부 스스로 모순되는 주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농민단체는 통계청의 쌀생산량 전망치를 ‘엉터리’ 라고 규정하면서 “엉터리 통계가 나오는 이유는 조사 방법이 엉터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통계에 낟알 수는 나오는데 등숙률(낟알이 여문 정도)은 빠져있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농민과 농협은 올 쌀 도정률(나락을 쌀로 만드는 비율)이 전년 대비 평균 15% 정도 떨어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정부 통계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폈다. 낟알 수가 아무리 많아도 태반이 쭉정이면 생산량은 급감한다는 것이다.

농민단체는 현장 농민, 단위 농협 체감 정도를 근거로 올 생산량이 전년 대비 20~30% 감소했다고 보고 있다. 생산량 감소로 농지임대비용과 기계 작업비, 인건비 등을 제하면 농민들이 손에 쥘 수 있는 이익금은 미미하다는 게 농민들 주장이다.

농민단체는 그러면서 통계청 등 정부에 ▲시·군청 직원과 함께 쌀 생산량을 조속히 재조사를 하고 ▲쌀값 하락을 위한 공공비축미 방출 대신 정부 매입량을 기존 35만t에 더해 추가로 35만t 늘려 쌀값 정상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키워드는 AI…기업 유치·인력 양성 최우선 과제

광주전남기협 제주 세미나
자율차 법적·윤리적 판단 요구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광주시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14일 ‘AI 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시 다음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인공지능에 대한 산업구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광주전남기자협회 공동취재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AI)관련 산업에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광주시 등은 인공지능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AI 관련 기업 유치와 인력양성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관련 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

광주전남기자협회 소속 광주시청 출입기자단은 지난 14일 ‘AI 중심도시 광주의 미래’를 주제로 제주시 다음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공동 취재를 다녀왔다.

공동 취재단은 국내 인공지능(AI) 시장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는 제주 다음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재승 제주협력팀 이사에게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산업구조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다.

이재승 이사는 “3차 산업혁명은 업무를 수월하게 수행하기 위한 정보통신, 인프라 영역이었다면 4차 산업혁명은 인프라는 물론 외적인 기술도 총망라한 시기로 볼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할 때 핵심적 키워드는 AI(인공지능)”라고 주장했다.

이 이사는 이날 인공지능 후발주자인 우리나라 기업 등이 겪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공유했다.

이 이사는 “인공지능 관련 가장 큰 문제는 국내에 인공지능 관련 인력이 부족한 것”이라며 “광주에도 인공지능 관련 대학도 있고, 인공지능 관련 성과를 내는 연구 인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인력 육성은 AI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핵심”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현재 정부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첨단 3지구 내 10년간 1조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등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광주는 특히 AI 인력양성을 위해 광주과학기술원(GIST)내에 AI대학원을 신설하는 한편 인공지능 인재 양성사다리 구축, 인공지능 사관학교 설립, 지역 대학 교육과정 연계, 초·중등을 위한 다양한 AI체험 및 학습 캠프 운영 등 생활밀착형 인력 양성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 이사는 AI 관련 법적·윤리적 문제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 이사는 “인공지능을 구현하는 방법 중 딥러닝과 머신러닝이 있는데, 머신러닝은 사람이 인풋을 주면 판단하게 되는 것이라면 딥러닝은 인간의 뇌 구조와 비슷해 나중에 스스로 알아서 판단하는 구조”라면서 “결국 딥러닝이 적용된 자율주행차는 사고 발생시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준의 도덕성을 입력하고 지녀야 한다. 법적·윤리적 측면의 넓은 범위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한 사례로 “결국 교통사고 직전 운전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인 지,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우선인 지, 아이나 노인 등 약자 또는 사회활동이 활발한 청년 중 누구의 안전을 선택해야 하는 지 등을 AI 차량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는 동·서양, 성별, 국가, 민족 등에 따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부문으로 정답이 없다. 어느 누구도 답을 내리기 힘든 부분이지만, AI 차량의 대중화를 위해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이다.

/광주전남기자협회 공동취재단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고용시장 새바람을”

광주시, 다음달 6일까지
‘광주 잡 온택트 취업박람회’

광주시는 19일 “이날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혁신기술선도기업과 함께하는 ‘광주 잡(JOB) 온(ON)택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취업박람회는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 고용시장을 활성화하고, 고용촉진과 질 높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온라인 일자리정보시스템(광주잡넷)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된다.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광주잡넷 홈페이지(www.gwangjujob.net)에 접속해 기업 정보를 확인할 후 참여할 수 있다.

취업박람회 참여기업은 광주 1호 광통신 기업이자 청년친화 강소기업인 ‘우리로’를 비롯한 성장이 유망한 혁신기술선도기업 ‘메가테라퓨틱스’, ‘퓨리파이테크노’, ‘에스디테크’ 등 30여 곳이다.

박람회 참여 기업에는 무상으로 인공지능 역량면접 이용 라이선스를 제공해 직무 적합도에 근거한 맞춤형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직자에게는 인공지능 모의면접을 통한 피드백, 1대1 서류·면접 컨설팅, 취업 콘텐츠 확인, 화상면접 정장대여, 참여자 기념품 제공 등 특별한 혜택을 제공해 기업과 구직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매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에 따라 대면행사를 대폭 줄이고, 온라인 중심 인공지능 비대면 역량면접 시스템(화상면접)을 도입해 기존의 ‘스펙중심’에서 ‘사람중심’ 채용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종천 광주시 일자리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과 구직자들이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통해 실질적인 취업과 채용으로 이어져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시, 내년 성인지 예산 1485억

33개 부서 81개 사업 선정

광주시가 내년도 성인지 예산으로 81개 사업 1485억원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시청 여성가족국 회의실 및 18층 다목적회의실에서 81개 세출예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1년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1대1 전문가 대면 상담을 했다.

성인지 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미리 분석해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21년 성인지예산서 편성을 위해 시의회, 시민단체, 전문가 이행정등이 참여하는 젠더 거버넌스를 개최해 평등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2020년 성인지예산 중점관리대상사업 및 2021년 시정 주요 신규사업 총 361건 중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경제, 안전, 가족·돌봄 분야 81개를 선정했다. 이는 33개 부서 총 1485억원에 해당된다.

광주시는 각 사업에 대한 성별격차 원인분석,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에서 전문가 상담을 거쳐 예산서를 최종 수정·확정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대폭 증가

상반기 518억원 제품 구매

전남도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 추진에 따라 올 상반기 518억원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구매실적 299억원 대비 73%(219억원) 증가한 수치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의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확대를 통한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대상은 전라남도 본청을 비롯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의회사무처, 출자·출연기관과 함께 시·군청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총 구매목표액 4870억원의 14%인 684억원으로 정하고, 구매 확대와 목표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및 판로활성화 간담회, 전라남도 공공구매 온라인 플랫폼 신규 구축 등 구매촉진 활동을 펼쳐왔다.

전남도는 상반기에만 올해 우선구매 목표액의 75.7%를 달성해 연말까지 당초 계획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선구매제를 별도 추진 중인 도교육청(지원청 포함)과 나주빛가람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확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 진 장편소설

허균,
불의 향기

한글 문학의 뛰어난 성취인 ‘홍길동전’의 작가 허균
그에 대한 헌사가 소설 ‘허균, 불의 향기’로 피어나다.

역사적 사료 이면에 드리워진 진실을
이진 작가는 특유의 방식으로 탐색하고 풀어낸다.

출판사 : 국학자료원 새미(주) 02-442-4623

- 작가의 말
“허균과 함께 한 지난 몇 년은 참으로 충만했다.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졌다. ‘사람들이 내 시를 보면 이것은 허균의 시다라고 말해주면 좋겠다’던 허균의 당당한 바람까지도 나의 것이 되었다. 이젠 그 충만감을 다른 이들과 나눌 때가 된 듯하다. 혼자만 누리기엔 그가 너무 크다.”

- 추천사
“휘몰아치는 강렬한 서사,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탁월한 이미지, 영롱하게 반짝이는 시적인 문장, 소름 돋는 전율에 취해 눈을 떼지 못하고 읽어내렸다. 조선이 버린 인물 허균이 이 소설을 통해 21C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탄생한다. 이름을 부르면 금방이라도 달려올 것 같은 생동감 넘치는 인물들과 함께.”
– 함진원 시인

조선의 시인 허난설헌

하늘 꽃
한 송이, 너는

조선 최고의 여성 시인이자
조선 최초 한류를 일으킨 주인공 허난설헌
슬프고도 아름다운 일생이 그녀의 몸종의 시선으로 그려지다.

소설 ‘하늘 꽃 한 송이, 너는’(북치는 마을)은
스물일곱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 시인 허난설헌을
오늘 시대에 새롭게 되살려낸다.

저자 이 진

소설가이자 문학박사. 목포대 강사와 광주여대 교수 역임.
소 설 집 :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꽁지를 위한 방법 서설’
장편소설 : ‘하늘 꽃 한송이, 너는’, ‘허균, 불의 향기’ 등